

잡음 많은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출범 강행 논란

7월 본격 시행 앞두고 10일 출범식...2과 6팀 28명 구성 일부 초대 위원 선정 의혹 확산...제대로 운영될 지 의문

광주시가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강행하기로 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례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경찰도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서며 등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7월 출범 자체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7월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꾸리려던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10일 광주시청에서 출범식과 현판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간다.

행사에는 이용섭 시장, 김용집 시의회 의장, 이흥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학실·송형일 시

원,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최관호 경찰청 기획조정관, 김교태 광주경찰청장, 자치경찰위원회 전원이 참석한다.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임명장 수여,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광주경찰청 협약식, 현판식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고 상임위원 선출 등 안건도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장(정무직 2급 상당)은 이날 임용되며, 상임위원(정무직 3급)은 위원회의 제청과 채용 절차를 거쳐 13일 임용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동행정부서로 자치경찰 사무 관련 주요 정책 심의·의결, 감사, 사무 조정 등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국은 2과 6팀 총 28명 규모로 꾸리

며 사무실은 시청 12층에 마련됐다. 시 공무원 17명(정무직 2명 포함)과 경찰 공무원 11명이 함께 근무한다.

광주시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함께 한달여간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7월 자치경찰제를 공식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초대 위원 선정부터 각종 뒷말이 나오는 등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초대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 추천 인사 선정에 대한 공정성 지적(광주일보 4월12일자 5면·4월 21일자 1면·5월 7일자 5면)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용관 국회의원이 최근 광주시의회에 자치경찰위원회 추천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시의회 자치경찰 추천위원회 위원 명단과 4배수 선정 인사의 순위, 자격 요건, 점수표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의회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4명을 선발한 뒤 결격 사유가 없는 1위(번호사)를 배제하고, 2위(경찰

총경 출신)과 4위(교수 출신) 인사를 추천한 데 대해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장과 4위 순위자와의 사제 관계를 질문하는 등 구체적인 자료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4순위자가 김 의장과 사제지간인데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광주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아 김 의장을 포함한 시의원 후보들의 경선 원칙, 검증 등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 내에선 공정성 등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번 시의회 추천 자치경찰위원회 선정 과정에 참여했던 한 시의원은 "한 점 의혹 없이 가장 공정하게 출범해야 할 자치경찰위원회가 첫 출발부터 각종 의혹을 받게 돼 시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시의회 내부에서도 1위를 배제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강했지만, 결국은 2위와 4위를 최종 후보로 추천해 논란이 됐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모집 전남도-전남관광재단

전남도가 '2021 전남 관광두레지역협력사업에 참여할 신규 주민사업체'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전남 관광두레지역협력사업은 신규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에 인건적으로 정착해 견고한 주민주도형 관광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멘토링 및 교육, 시제품(파일럿) 사업 지원 등을 통해 후속투자도 이어지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번 사업은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전문 멘토링, 맞춤형 실무 교육지원 등 해당 주민사업체 특성에 맞는 경영개선에 초점을 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모집대상은 전남 관광두레지역 협력사업 대상 지자체인 여수, 나주, 담양, 곡성, 구례, 보성 등 6개 지역에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신규 관광 창업을 바라는 주민 모임이다.

모집 분야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식음, 체험, 숙박, 기념품, 주민여행사 등을 비롯해 지역관광 산업과 연계된 관광업종이면 된다. 전남도는 외부 전문가의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6월 8일 신규 주민사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코로나 이후 지역의 특화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운영으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관광두레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있다"며 "신규 주민사업체 발굴을 통해 지역관광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청년센터 기능 확대 2023년까지 22개 시·군으로

함평서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

전남도가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청년센터'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현재 18개 시·군에 조성·운영 중인 청년센터를 오는 2023년까지 22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6일 함평에서 '찾아가는 청년소통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윤연화 전남도 인구정책관, 김경자 전남도의원, 고희석 함평군 부군수, 함평군 협의회 소속 청년대표 6명 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함평군 청년협의체 소속 청년활동가, 농·축산업, 청년창업농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의 정책 제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한 청년거점 공간인 함평군 청년센터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함평군 청년협의체 소속의 청년들은 '청년협의체 정보공유 기회 마련', '청년정책 참여',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건의했다.

심덕재 함평군 청년협의체 대표는 "논의 내용이 청년정책 발전의 마중물이 되고 이번을 계기로 소통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7일 오후 동구 아이플렉스(I-PLEX)광주를 방문,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받은 뒤 입주 업체 대표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청년일자리 대책 마련 나선다

이용섭 시장, 청년·기업과 간담회

광주시가 청년일자리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7일 I-PLEX광주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일자리 참여청년 및 기업 관계자 등 20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청년·청소년 특별주간'의 행사로 마련됐다

이 시장은 이날 I-PLEX광주에 입주한 청년기업의 제품을 살펴보고 이어진 간담회에서 청년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낀 점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청년·기업 관계자들은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기간 연장 ▲참여청년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유튜버를 활용한 청년일자리 사업 홍보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또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제2기 청년창업자 출범식'에 참석해 로컬창업 거점공간을

둘러보고 프로그램을 공유했다. 올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8개 팀의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올해로 2기를 맞는 '광주시민회관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지역적으로 가치있는 공간을 배경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사업이다.

청년 창업자들은 주차장 등 이용 편의 확대와 사업 참여기간 연장, 창업 후 연계 지원사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유용공간이었던 광주시민회관이 청년과 만나면서 1년 여만에 광주를 대표하는 창업공간이자 명소가 거듭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여성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전남도, 10일~23일까지

전남도가 10일부터 23일까지 2021년 전남 여성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 채용 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여성의 신속한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위해 전남도가 목포·여수·순천·나주시의 일자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전남지역 150여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에 선 구직여성과 기업에 채용정보와 인재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상담·면접을 알선하는 등 각종 고용서비스로 300여 명의 여성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람회는 인터넷 취업포털인 잡코리아(http://wjob.jobkorea.co.kr)를 통해 참여기업 모집, 홍보, 기업과 구직자 매칭 등이 이뤄진다. 권역별 채용관 운영, 기업 채용공고 등록, 구직자 이력서 등록, 인·적성 검사 등을 제공한다.

특히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 구직자들에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컨설팅 등 온라인 채용 등록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종본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지속적으로 기업과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해 여성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